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진도

3. 빈약한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40)

순례자

발행인:이종윤

편집인:나희주

편집주간:원필현

발행처:서울 장로교회

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517-7651~5

FAX: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슬로바키아에 신학교 설립된다

-파블레 체콥선교사-

우리교회가 동구라과 복음화를 위하여 파송한 파블레 체콥선교사가 보내온 서신에 의하면 오는 9월 14일에 선교신학교가 슬로바키아에서 문을 열게 된다. 지난 6개월간 복음주의 7개 교단 대표자들을 묶어 연합신학교 개교를 추진한 체콥선교사의 기도 열매가 마침내 가시화 된 것이다. 반스카 비스트리카 대학건물 한 동을 사용케 될 이 신학교는 이미 24명의 학생을 확보함으로써 지난 45년간 단절되었던 교회 지도자 양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 1년동안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 복음화를 위해 사역자 훈련에 전념해 온 파블레 체콥선교사는 김치세미나 제 1기 졸업생으로 신학교육을 통한 선교확장론을 실제로 시험하고 있는 선교사로 알려졌다.

파블레 체콥선교사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지원에 감사를 보내면서 특별히 오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동구라과 모든 나라들로부터 초청된 150명 지도자들에게 새벽기도훈련 세미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그리고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의 복음화를 위한 전략연구에 성령님의 지혜와 지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직도 홀로 뛰고 있는 체콥선교사는 사무실과 비서를 허락해 달라고 쉬임없이 기도한다고 한다. 동구라과 전역을 밤낮으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각국의 교회를 연결시키려면 이같은 기도는 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정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를 기억하고 지켜보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자. 그가 대접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가정은 목적이 있는 가정으로 행복할 것이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진 가정이 되자. 그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다른 가정에까지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으로 힘을 가져야 한다. 네째로 그리스도안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그 안에서 용서와 감격과 찬양이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 이처럼 가정이 깨끗하고 힘이 있고 거룩해야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새 힘을 얻게 될것이다. (1993. 5. 16 동아일보)

임정미 선교사 우간다로

-8월 9일 월드컨선선교회 파송-

월드컨선(회장 이종운 목사)은 임정미, 김은희 두 간호사를 오는 8월 9일 우간다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 이미 우리 교회의 선교지원을 받고 있던 박숙경 선교사가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간 특별 수련을 받기 위해 귀국하므로 임정미 선교사가 우리교회 선교사로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김은희 선교사는 영락교회와 제주영락교회의 지원을 받게 된다. 우간다에는 우리교회 지원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김정윤 선교사가 간호사로 크게 활약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 저녁 찬양 예배시 우리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선교보고를 하게된다.



♡ 좌측 첫번째 박숙경선교사, 세번째 김은희선교사, 우측 첫번째 임정미선교사, 세번째 김정윤선교사

성경통신 상반기 평가 및 시상

우리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성경통신교재 공부에 대해 오늘 찬양 예배시 상반기 평가 및 시상식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성경통신에 참여한 성도수는 평균 350명이었으며, 그 중 전회에 걸쳐(1~26호) 한

번도 누락됨이 없이 성실하게 참여한 성도는 234명에 달했다. 특히 고등부 최읍균은 지난 6개월 동안 신구약성경을 2번 통독함으로 최다 독경자로 나타났다. 오늘 찬양 예배에 모두 참석해 줄 것을 기대한다.

☐...입시생들이여!
주 안에서 큰 믿음과 희망을 갖으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던가.

창세기강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창1:1-3)



이종운 목사

천지창조

오늘 이 세상에는 창조론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진화론을 믿고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진화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미생물과 같은 아메바가 점점 자라나서 인간이 되었다는 무신론적 진화주의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은 했지만 창1:1절과 2절을 구별하여 설명하려는 유신론적 진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고대 희랍철학자들 가운데 탈레스나 에피쿠로스등은 지구 모든 만물의 기원을 불이나 물, 먼지 등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성경 진리와는 전혀 다른 진화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사실인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과학자들이 모여 창조이론을 입증해내겠다는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 역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5절과 24절에 '창세기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고 태초 이전, 창조이전에 이미 계셨던 영원하신 분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태초'는 마지막을 잉태하고 있으므로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론을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이미 진화론을 가르치는 생물학자들도 서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은 더 이상 학문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2. 창조론

(1) 재 창조론

하나님이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2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하고 연구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첫번째 이론이 재창조론입니다.

사탄이 된 루시퍼(계명성)가 하나님앞에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다스리다가 온세상이 혼란에 빠져 공허된 세상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면서 다시 창조를 하셨다는 이 이론을 복음주의 목사들과 스코필드나 웨이퍼박사 같은 분들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재창조론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몇 가지로 지적을 해봅니다.

① 주석적 해석

1절과 2절 사이에는 히브리어의 바우(waw)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바우는 그리고(and)나 그러나(but)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재창조의 이론은 그러므로 번역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1절에서 창조의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3절 이후에서부터 천지창조가 시작된다고 하기 때문에 처음 두 절은 자연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1절은 'Head Line', 즉 하나의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는 과정은 이렇다 라고 2절부터 설명한 것이지 여기서 재창조론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② 신학적 해석

아담과 하와가 있는 후 사탄이 타락을 한 것이지 루시퍼가 사람도 생기기 전에 먼저 타락을 해서 재창조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God Create) 빛이 있었고(made)", Create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make는 유에

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는 히브리어로 Barah(Create), 2절이하에는 asa(Make)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분명히 재창조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사람들은 이 두 단어를 섞어서도 바뀌서도 쓰지 Make나 Create를 구별하기 위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창조론을 거부해야 합니다.

(2) 6일 창조론

우리나라에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써놓은 주석책을 보면 거의 첫째날부터 여섯째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6일 창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24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6일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경우에 우주 역사는 6천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기전 4천년, 오신 후 2천년이 되어서 7천년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을 몇년, 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옛세 동안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 이것은 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 년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이미 베드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년인지 60만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3) 점진적 창조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되 지

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즉 우주가 자꾸 공간을 넓혀 가며 팽창한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우주론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이론은 진화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4)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론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지금도 지키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창조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은 준비단계이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날은 성취단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근원은 빛입니다. 첫째날이 네째날을 위하여 준비된 것처럼 준비와 성취의 마지막이 일곱째날, 곧 안식일입니다. 안식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첫째날부터 여섯째날이 일곱째날을 위하여 준비된 날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안식일은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해서 일주일의 첫째날입니다. 첫째날 주님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배드리 는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온다는 것이 창세기1장에 나타난 창조론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놀라운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섭리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여름

“주여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라이너 M. 릴케는 풍성한 가을의 길목에서 삼복의 폭염과 작열하는 태양의 여름을 위대했다고 노래했지만 사실은 더질듯 영어 가는 포도 알맹이에 마지막 단맛을 더 하려고 쏟아 붓는 햇살너머에서 우주 만물을 홀로 주장하시는 창조주의 위대한 섭리의 오묘하심을 감탄한 것이다.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건축헌금을 드렸고 일천여 성도들이 손에 손잡고 성령의 역사와 서울교회 가족임을 다짐한 전가족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친 여름은 참으로 위대한 여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각양의 온사대로 정성을 다한 사랑의 수고 뒤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일점일획도 무오하신 약속은 우리들을 통하여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입추가 지났으니 벌써 가을의 문턱에 가 있는가!

이른 봄부터 씨뿌리고 애써 가꾼 곡식들이 알찬 결실을 위해 마지막 땀을 쏟는 농부의 정성처럼 씩없이 기도해 온 일들을 하나하나 건립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자. 일의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시작한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책임있는 성도답게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새 예루살렘의 소망속에 릴케처럼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영원한 승전가를 주님께 드리자.

내가 받은 새 도전

최 지원 (고등부)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에 이중운 목사님께서 삼일에 걸쳐 주신 여호수아, 엘리야, 바울에 대한 말씀을 통해 나는 새로운 삶의 목표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비결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들과 여호수아의 위대한 승리를 보며 그저 막연한 동경심만을 가졌던 나였고 때로는 상대적 비교가 되어 좌절감까지 느끼곤 했었으며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그 좁은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나였으나, 두려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실것을 믿으니 나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승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엘리야! 그의 무조건적인 순종에서 그의 강한 믿

음을 볼 수 있었고 그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려보았는가? 얼마나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 드려보았는가? 돌이켜 볼때 나의 기도의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었고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였던 사울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도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비록 나약하고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다. 이런 좋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린다.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편지들

지난 6월 제4차 김치(KIMCHI) 세미나에 참여했던 아프리카 21개국 29명의 목사님들로부터 감사의 편지가 쇄도하고 있다.

르완다 복음주의 교회 총회장 길버트 하비마나 목사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서울교회와 동반자관계를 맺도록 요청해 왔다.

후레드 다-그베 목사(가나)는 서울교회가 뿌린 복음의 씨가 아프리카에서 풍성히 맺고 있음을 서울교회 성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웅동 알로게 목사(가봉) 역시 가봉복음화를 위한 여러가지 프로젝트들 제시해 오며 한국교회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김치세미나에서 얻은 감동을 아직도 주체할 수가 없다고 한다.

캐논 존 오보케(우간다) 목사는 김치세미나에서 얻은 5가지 교훈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한다. 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마다 그리스도 중심 ② 성경적 설교-강해 설교를 통한 성경연구를 조직으로 함. ③ 교회의 사랑과 관용 ④ 전도와 훈련에 집중 ⑤ 여러 강의 중 이중운 목사의 두강의는 나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여 전국교회에 배포하고 있음. 거기에 새벽기도, 산상기도는 자기 일생 최고의 경험이었으므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캄 와나(말라위) 목사는 서울교회 형제들의 복음안에서 연합과 협력하는 모습은 가장 인상적이었으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 국방문을 통해 참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휴 웨트모어(남아프리카) 목

사는 김치세미나를 한마디로 깊은 체험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것은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감성적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책을 읽거나 비슷한 강의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얻을수 있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다음은 웨트모어 목사의 편지를 요약한 것이다.

나는 KIMCHI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와같은 비전은 전 세계 선교전략 중 매우 독특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서울교회와 같은 나이가 많지 않은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대업을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이 또한 세계 선교역사상 처음 있는 독특한 사건이라 하겠습니까.

서울교회와 같은 신생교회들은 대개 자기 확장과 안정에 주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열심인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습니다만 초 대형교회도 하기 어려운 일을 서울장로교회가 놀랍게 감당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용으로 우리를 비롯없이 만들어 놓은것 같습니다. 모든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의 주님께 대한 희생적 헌신을 우리는 당신들의 눈빛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진이 큰 빛을 무엇일 값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KIMCHI 경험을 글로 남겨 아프리카 방방곡곡에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일체적으로 KIMCHI 강의 노트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감사하면서...

광고 : 91년 12월 4일 수요일에 설교테이프 「나는 참 포도나무」를 갖고 계신 분은 테이프실로 연락 바람.

순례자칼럼

진정한 구원

홍정호 장로



현대교회에서는 회개라는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어떤 교회에서 세례문답자 43명중에서 42명은 성경에 의하여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죄를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수세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현대교회에서 예수그리스도만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만 강조하고 죄인이 회개하여야 할 것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한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라고 복음의 문을 열으셨는데 현대교인들의 회개에 대한 거부 반응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회개하라 외치시기 보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성도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

전도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가 살아 나셨습니다.”라고 설명한후 이것을 믿느냐고 물은 다음 믿는다고, 답을 얻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부터 심어 주려고 한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실제적인 회개가 없이 또 아무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님께서 내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다는 일에 눈물 한 번 흘림도 없이, 감격도 없이, 감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 동의만 얻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함으로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참된 구원을 오도함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착각속에서 봉사만 열심히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개란 죄를 지으며 멸망을 향하여 살인 사람이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일과 죄로부터는 물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는 소원을 가지고 정욕되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되는,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방법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회개하였다고 하면서 내 죄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참다운 회개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초청의 말씀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한국교회의 바른 방향설정을 위해 성경적 교회론을 심도있게 다루면서 이혼분의 고전적 인물들을 동서양에서 택해 우리들 목회현장의 모델로 삼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의 국내 외 석학들과 경건한 교회지도자들의 특별히 연구된 논문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경향 각지에 흩어져 계신 목회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준높고 목회에 크게 도움이 될 효율적인 강의가 진행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국의 동역자 여러분을 초대하며 기도후원을 바랍니다.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원장 이종윤(서울장로교회 목사)

세미나 안내

- 세미나기간: 1993년 9월 13일 - 11월 15일(10주간)
- 일 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 장 소: 강남 YMCA(서울 강남구 논현동 225-6)
전화: 547-0817
- 수강대상: 전국의 목회자
- 수업년한: 2년으로 하되 일년에 2학기(한학기는 10주) 중 40주
- 원서교부 및 접수일: 1993년 8월 16일 - 9월 13일
- 제출서류: 본원 소장양식의 원서, 증명사진 한장, 시무하는 교회의 주보 혹은 교역자 증명서
- 등록금: 한 학기(10주)에 만원
- 교부 및 접수처: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서울장로교회사무국)
135-010 강남구 논현동 165-18 서울강남우체국 사서함 2123
전화: 517-7651/5 팩스: 512-1225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

주제: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 2000년대를 향한 한국교회 목회 모델 -

제 1 교 시 14:00-15:30(90분)	일 시	제 2 교 시 15:50-17:20(90분)
9월 13일 - 11월 15일 성경적 교회성장 원리 이종윤(서울교회)	9월 13일	스탈렌(CH Surgeon)의 설교와 목회 장광복(장신대)
	9월 20일	윌렛드(G. Whitefield)의 설교와 부흥운동 오덕표(합신)
	9월 27일	주지철의 목회와 순교 민경배(연세대)
	10월 4일	피니(C.G. Finney)의 설교와 영성 원종진(아세아신대)
	10월 11일	손양원의 목회와 경건 이만일(숙명여대)
	10월 18일	김전주의 생애와 설교 김인수(장신대)
	10월 25일	몰러(G. Muller)의 경건과 기도 홍치모(총신대)
	11월 1일	21세기 목회자의 경건과 리더십 Chase(윌트대 총장)
	11월 8일	버번(J. Bunyan)의 경건과 비전 장종철(장신대)
	11월 15일	하나님의 목회와 나의 설교 임택진(장로리중앙교회)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Mission &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Tel : 517-7651~5 Fax : 512-1225(서울장로교회)그가 나를
택하셨도다

- 그레이스 E. 트로어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
당신의 택하심이 가장 선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당신 안에서 나는 안식합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손에 이끌려
당신의 뜻 안에서 안전히 거하며
왜냐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를 위한 위대한 역사 위에
빛나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주의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예배당을 짓게 하소서.
2.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3. 입시생들이 8월 20일에 있을 수학능력시험을 잘 준비하도록.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교회약도

